

배려하고 이해하는 병사가 되도록 지도

‘브라이트 캠프’ 병사들 자원봉사 활동 지원 ...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지 봉사하러 달려갑니다”

병사들과 자원봉사활동 전개 김장배 원사(22사단)

지난 17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 3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장 주변에 흔히 볼 수 없었던 군 장병들의 봉사활동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육군 22사단 김장배 원사가 이끄는 ‘브라이트 캠프’ 병사 10여명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병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을 지도하며 이끌고 있는 김장배 원사를 찾아 부대를 방문했다.

커다란 광장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부대 인근 주변에 풍경 또한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위병소에 위치한 자그마한 면회실에서 만난 김장배 원사는 깔끔한 외모에서 풍기는 첫 인상이 매우 좋아보였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에 나와 함

께 동참해 주는 병사들이 주인공이죠. 저는 병사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김 원사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학업을 그곳에서 마치고 20세 되던 1982년 12월 일반병으로 입대를 했다. 입대 후 다음 해에 부사관으로 임관하고 85년 7월 13일 고성군으로 전입했다.

30여년의 군 생활 중 26년을 고성에서 복무하고 있는 김 원사는 이제는 이곳이 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에 탓인지 주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직접 찾아 나서곤 한다.

김 원사는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찾아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고성군 시각장애인협회를 찾아 그곳에서 실내 청소 및 휠체어 밀어주기, 주변환경정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다 보니 이젠 많은 단체에서 불러지고 있다.

김 원사의 영향을 받은 탓에 딸 김아름양(21세, 대학교 2년)도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전역후 고성에서 거주할 계획인 김 원사는 “병사들을 동생과 자식들이라는 생각으로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주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싶다”며 “모든 병사들이 그래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 원사는 “앞으로도 국가에는 충성을 지역에게는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빅마마’ 권덕미씨

“다문화가정은 피할 수 없는 추세”

“다문화가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위에서도 쉽게 다문화가정을 접할 수 있지 않아요. 저희 남편 친구분도 알고보니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더라고요.”

지난달 열린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장기자랑 대회에서 고성을 대표해 출전한 ‘빅마마와 시스터즈’ 팀이 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들을 지도한 권덕미씨(45세, 사진)의 남다른 다문화가정 사랑이 화제다.

속초다문화가정지원센터 고성 방문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코리안드림과 사랑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하소연을 친정엄마처럼 들어주다보니 ‘빅마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했다. ‘빅마마와 시스터즈’라는 팀 이름도 그래서 만들어졌다.

권씨는 “남편들에게 부족한 사랑을 충전받자는 의미에서 노래는 ‘사랑의 반데리’로 정했으며, 복장과 안무를 코믹하게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4년째 방문지도사로 일하다 보니 다문화가정과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고 했다. 특히 필리핀 여성들과는 별도의 사적인 모임도 갖고 있다. ‘한국 아줌마가 된 필리핀 아줌마들의 모임’이 그것이다. 줄여서 ‘한필모’라고 부른다.

그녀는 다문화가정도 여느 가정처럼 부부간에 다툼이 많으며, 한국인 남편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생하는 여성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너 데러오려고 얼마 들었는지 아느냐는 등 상식



이하의 말을 하는 남편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여성들을 볼 때면 한국인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권씨를 비롯한 고성지역 방문지도사들은 26일 오후 3시 간성 갈릴리침례교회에서 ‘행복한 옷바자회’를 개최한데 이어, 7월1일 개최되는 여성 한마음대회 ‘마카레나’ 공연과 7월9일 전국 장기 자랑대회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권씨는 “속초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속초, 고성, 양양지역 방문지도사들 가운데 고성 지도사들이 가장 젊고 열성적”이라며 “우리 고성 지도사들은 꿈을 찾아 한국에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너무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양구여고를 졸업한 그녀는 지난 1992년 남편 최남선씨(51세, 경동보일러 운영)를 만나 거진에 정착했으며, 2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최광호 기자

□장애인복지회 고성지회 박승태 회장

“장애인 복지향상·고충 대변”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사)강원도장애인복지회 고성지회 회장에 박승태씨(43세)가 임명됐다.

장애인복지회 고성군지회는 이번에 처음 설립됐으며 앞으로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의 복지향상과 고충 등을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 1대 회장에 임명된 박승태씨는 지체장애3급으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고성군 장애인 스키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박 회장은 15년동안 인터스키 선수로 활약하며 스키장에서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6년 스노우 모빌에 치어 다리가 절단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후 3년간 16차례의 수술과 재활을 극복해 현재 장애인 스키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회전·슈퍼대회전 종목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을 토하며 인간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박 회장은 “고성군 장애인복지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취업의 기회도 적다”며 “장애인도 직장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관광레저진흥회 고성군지회회장으로도 임명된 박 회장은 현내면 산학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인 박정성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원광연 기자

